



다양한 인재를 위한 다양한 선발 제도



조지형

이화여대 입학처 관리부처장

지난 6월 22일 수시 1학기 모집의 합격생들이 등록을 마침으로써 수시 1학기 모집이 끝났다. 이화여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대학의 등록률이 평균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과 학부모의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사실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한 관심은 이미 5월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초등교육과는 54.5 대 1, 의예과는 39.5 대 1, 언론홍보영상학부는 33.3 대 1 등 지원 경쟁률이 치솟았다. 물론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세대의 경우 의예과는 31.6 대 1, 치의예과는 29.6 대 1, 한양대의 경우 리더십 추천 전형의 사회과학부는 2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부정적 시각 속에서도 높은 지원률 보여

수시 1학기 모집의 도입이 예고될 때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시 1학기 모집은 아직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이었다. 또한 수시 1학기 합격생의 규율과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시 1학기 모집은 수시 1학기 합격생뿐 아니라 교생 전체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실효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잘 지내 온' 학생이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후에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탈선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항변과 반문이 섞인 불만의 토로였다. 그리고 심층 면접을 비롯한 입시 업무로 1학기에조차 엄청난 시간과 노력, 봉사를 하게 된 대학교수의 입장에 보면 수시 1학기 모집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의 발돋움하려는 노력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로 간주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수시 1학기는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비춰졌다.

그렇다면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한 기록적인 경쟁률과 등록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위 '입시지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해 열광적으로 관심을 갖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합격하게 된다면 엄청난 과외 비용만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예리한 지성과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청춘의 반년이란 엄청난게 소중한 것이다. 어느 수필가는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말이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고3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세간의 말처럼 공부 기계로 전락해 버린 고3 수험생의 인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시 1학기 모집인 셈이다. 더욱이 모든 고3 수험생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러하듯이, 집안에 고3이 있으면 1년간 극도의 위기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고3 수험생'이란 용어는 단순히 한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고3 수험생이 겪는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고3 수험생의 부모, 가족, 교우, 교고 교사 등 모든 인적·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사회, 나아가 소우주의 해방인 셈이다.

그러나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무조건 조기에 대학 입학 여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실 붕괴와 교권 붕괴를 축으로 하는 교육 위기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대학의 조기 입학의 필요성을 과장함으로써 고3 수험생을 교실로부터 구축(驅逐)하는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의 수시 1학기 모집의 지원 경쟁률과 지원 양극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합격 여부에만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시 1학기 모집의 지원생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과·학부에 소신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록적인 지원 경쟁률이 가능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시 1학기 와 수시 2학기에 해당하는 미국의 조기 결정(Early Decision)이나 조기 지원(Early Action)은 정시 모집(Regular Admission)보다 그 자체의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정시 모집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보다 덜 경쟁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 지원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선호하는 대학,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하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시 1학기 모집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시 1학기 모집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우수 학생의 선발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 모집은 직·간접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시 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대입 제도이다. 단 1회 치르는 수능시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시 1학기 모집이란 과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의 중요성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을 이에 바치며 자기 성찰과 비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교육이란 자고로 전인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험에 대한 평가도 학업 성취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전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숭고한 교육 이념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시 1학기 모집이란 과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설계금 제시할 수 있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의 중요성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을 이에 바치며
자기 성찰과 비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다양한 우수 학생 선발의 혁명적 변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식만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학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공부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수험생이 내적으로도 성숙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회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현 제도는 운과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수시 1학기 모집은 대학 입학의 역사 속에서 구술 면접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신문지상과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고대, 연대, 한양대 등에서 최대 50%, 심층 면접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심층 면접의 결과가 24%의 당락을 바꾸었다. 고교 내신이 부풀러지고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서 심층 면접은 수험생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방법으로 등장하고 심층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심층 면접이 이처럼 대학입시에 중요한 전형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수시 1학기 모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서 각 대학의 입시 관계자들은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심층 면접의 전반적인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소 면접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소수의 수험생을 면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험생의 인성과 일반 교양 및 기초 수학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구술 면접 고사는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수시 1학기 모집 때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수시 1학기 모집 때문에 가능했던 심층 면접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험생들을 선발하였다. 심층 면접의 절차와 시험문제의 다양성은 대학의 자율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심층 면접의 적극적 활용은 대학의 자율성 고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시 1학기 모집은 평소에 내신성과 표현력이 뛰어난 남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이라는 제한된 학력평가 방법에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수험생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 순발력보다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 온 지구력 있는 수험생, 그리고 선다형의 문제보다는 주관식의 문제에 명석한 판단을 잘 하는 수험생, 이러한 종류의 우수 학생들이 과거에 홀대를 받았다면 이번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은 셈이다. 다양한 인재를 위한 다

양한 선발 방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이다. 순발력 있는 우수 학생도 인재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똑같이 지구력 있는 우수 학생도 인재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시 1학기 모집의 필요성과 장점은 세계사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따라 국가간, 사회간, 문화간에 의사 소통과 교류의 문제가 오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 소통과 교류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표현'이다. 표현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는가 하는 것이 대학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앞다투어 표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구술 면접을 통하여 수험생의 표현 능력을 심도 있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수시 1학기 모집은 이러한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면 비로소 대학 입학 제도가 지구촌으로서의 세계에 접합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전인(全人)평가를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지적한 수시 1학기 모집의 장점과 의미는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수정 내지 보완되고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면접이 계속 연구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상

담 전문가와 입시 관리 전문가의 고용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일반 사회와 대학의 따뜻한 배려와 긍정적 인식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험생에 대한 평가에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전인(全人)평가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만 매달리는 현행의 우수 학생 평가 기준이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 방송 매체의 무분별한 수능 성적 보도와 이에 따른 구태 의연한 대학 평가 방식이 폐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틀에 박힌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뿐 아니라 사회와 지구촌의 당면 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의 문제를 단순히 대학교 신입생의 선발 문제로만 파악하면 오늘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과감하게 오늘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개방적이면서도 균형 있고 절도 있게 미래의 세대를 훈육해야 한다. [E]

조지형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사학과에서 미국 법제사, 미국 사상문화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부교수로서 한국미국사학회 편집장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미국현대사」, 「오늘의 역사학」,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공저)이 있으며 「도미니크 리카프라의 텍스트 읽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 서술」, 「시민권」의 의미와 친노예제적 법문화 등의 논문이 있다.